

주간기도정보

2024. 5. 2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성오염 범람 막는 방파제 세우자’ 새벽에 울려 퍼진 기도소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위한 ‘연합금요철야기도회’ 개최



“6월1일 통합국민대회에 전국적으로 총집결해 성오염(성혁명의) 범람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개최를 한주 앞두고 준비한 ‘연합금요철야기도회’가 지난 24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7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다음 달 1일 대규모 쿼터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기독교에 반하는 움직임에 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다.

참석한 성도들은 70대 어르신부터 10대 학생까지 있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소속된 교회에서 단체로 온 청년도 있었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단독으로 참여한 청년도 있었다. 강원도에서 온 김한규(27) 군은 “군대와 대학 생활을 하며 각종 문란과 퇴행 등을 목도했다”며 “뜨거운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도회는 주로 합심-전체기도와 특강으로 진행됐다. 우선 특별기도위원장인 최광희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이뤄졌다. 성도들은 “한국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성경비평 반대 운동, 참된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 등에 앞장서 우리 자녀들을 구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전체 기도는 이용희 가천대 교수의 인도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한국교회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돼 열방에 진리와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진 특강 시간에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공동대표는 학교 현장의 성오염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육 대표는 “음란한 세력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한다. 규준이 됐던 가족의 개념도 재정의하고 사랑의 개념도 바꾸려 한다. 즉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없애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붙들고 자녀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며 “피할 곳 없는 자녀들이 소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혁 마가의다락방교회 목사는 “전방위적으로 성오염 물결이 일고 있지만 생각보다 교계가 안이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책임 의식이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고 지적하며 “성오염을 막지 못하면 이제 교계는 골리앗에게 당하는 일만 남았다. 교계는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되어서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의 저명한 법정 변호사이자 대표적인 반 성오염 행동가인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용기를 갖고 모든 방면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성오염은 궁극적으로 ‘안티 크라이스트’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는 25일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 진지하게 개인기도 시간 등을 가졌다. 밤을 새서 기도를 한 배상범(45) 성도는 “여럿이 모여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해 커다란 역사가 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이사야 29: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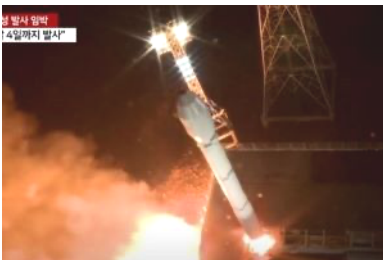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과 같이 진리의 편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성오염 물결이 일어나 동성애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정당화시켜 반기독교 세상을 만들려는 악한 사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인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고 혼미한 마음을 일깨워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이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건 기도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은혜로 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서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북한,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정찰위성발사 예고…‘6월4일전에 쏜다’

위성발사 도우려 러 기술진 대거 방북…엔진성능 개선 가능성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준비 정황이 포착돼 온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 설정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지시간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며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온 힘을 다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억제력과 대처력의 강화, 안보리에서의 대응,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 등에서 계속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과 같은 해역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궤도에 위성을 올린 뒤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져왔다.

정찰위성 1호가 궤도에 안착하긴 했으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돕기 위해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방북했고, 북한이 러시아 기술진의 검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엔진연소 시험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실시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 놓으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의 “악한 고리”인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당장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관련 각 정상 메시지에서도 이번 북한 통보를 둘러싸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을 끌게 됐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잠언 13:13-15)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브리서 4:13-14)

하나님, 자국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다른 나라의 외교에 대해 민감하여 불법 위성 발사 예고로 주변국을 견제하고 군사 개발에 막대한 국비를 쏟아붓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한·중·일 정상회의 내용이 북한을 향한 일치된 목소리로 결론되게 하셔서 북한의 어리석고 허망한 탐이 무너지는 틈이 되게 하시고 자유를 위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위정자들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없이 드러날 그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 앞에 지혜의 교훈을 받아 굽주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생명의 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 인하여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며 복음과 기도로 영혼이 살아나 날마다 선한 지혜자 되신 오직 예수만 따르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

‘늘 겸손한 제가 될래요’ 청소년의 고백…복음의 대축제

인천 청소년 대축제 현장…청소년과 청년 등 200여 명 온·오프라인 참석



넷째 주 토요일이었던 25일 오후 인천 서구 평강교회(박희정 목사).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잇따라 들어왔다. 가족과 함께 온 학생들도 눈길을 끌었다. 다음세대인천사역자협의회(다인싸 회장 류찬영 목사)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총회장 주승중 목사)가 주최한 ‘인천 청소년 대축제’ 참석자들이었다.

이날 마련된 집회는 인천시가 2021년 조례로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미전도 종족이라 일컬어지는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담았다. 집회에는 인천지역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과 청년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정일량 인기총 상임회장은 대회사에서 “성경은 구약 창세기에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꿈을 꿴다”며 “세상을 짊어질 여러분도 오늘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길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며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이라고 전했다.

집회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기독교 문화사역자 최일호 전 도사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시작을 알렸다. 집회장 안에는 학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활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렸을까. TR워십이 찬양을 시작하자 청소년들은 무대 앞으로 뛰어나갔다. 머리 위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이들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하는 이들까지 저마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유명 CCM 가수 강찬 평강교회 협동목사의 특별 공연도 함께 즐겼다.

집회 설교자로 인기 CCM '그 사랑' '주님의 임재 앞에서'를 작사 작곡한 박희정 평강교회 목사가 설교를 나눴다. 박목사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도 가는 거야'(막 4:26-2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되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움교회(김용원 목사)에 출석한다고 소개한 두경준(14) 군은 "게임도 찬양도 너무 재밌었다. 이번 집회는 최근 들어 은혜를 많이 얻어 가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큰기쁨교회(김성훈 목사) 학생부 박재석(16) 군은 "특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될 때 너무 좋았다"며 "집회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서도 항상 겸손할 수 있는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재영 다인싸 회장은 "이번 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또 오늘 받은 은혜를 갖고 돌아가 학교에서도 스쿨처치를 세우고, 친구들을 복음에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출처 : 국민일보 종합).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마가복음 4:26-28)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한복음 14:17)

하나님,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다음세대가 많은 이 시대에 청소년 연합 집회가 열려 참석한 학생들이 은혜를 누렸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들려진 말씀을 잊지 않고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진정한 거듭남과 복음을 깊이 체험하기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씨를 뿌리듯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과 섬김을 통해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소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다음세대를 통해 일부 지역을 넘어 한국 전역과 온 열방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